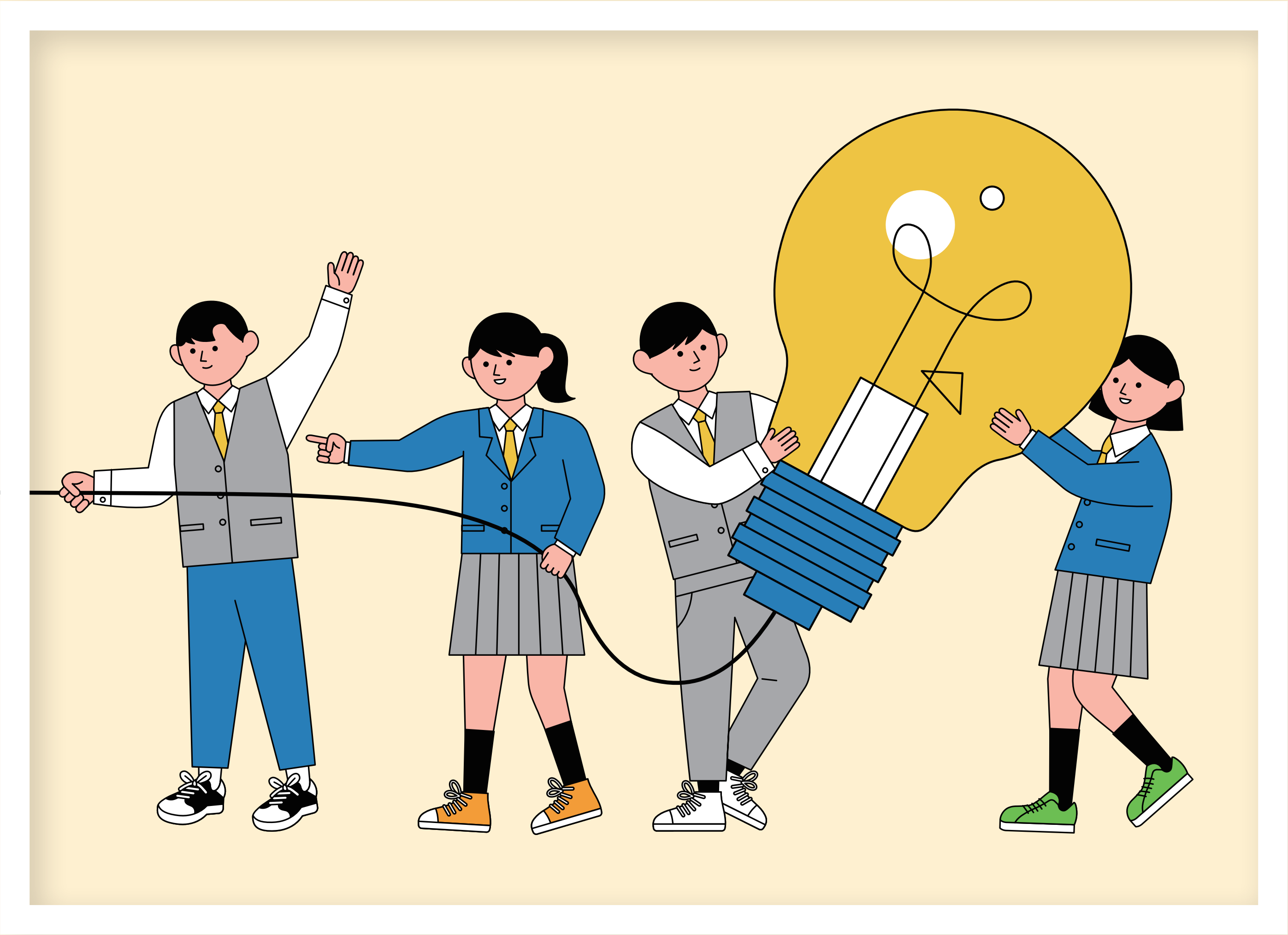
청소년이 직접 바꿔나가는 고양시

2021 청소년 제안창작소

16세 스웨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를 롤모델로 삼아 한데 모인 청소년들이 있다. 이들은 고양시 환경, 문화,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게 된다. 고양시가 청소년 제안발굴제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창의모임, '청소년 제안창작소' 이야기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이현재



(좌측부터) '내 손으로 만들고양'팀 김율하·박하은·이소현·김민서 학생

청소년에게 시정참여의 창구 제공

청소년 제안발굴제도는 청소년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기획된 제도다. 시는 이 제도의 실행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부터 6월초까지 약 2달간 관내 3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안창작소 구성원들을 모집했다. 3회째인 올해 멤버는 14~19세 청소년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8개 팀으로 나눠 활동한다.

고양시(기획정책관)와 고양시청소년재단(토당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들의 작은 아이디어

선발된 청소년들은 매년 3개월간 팀별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3차례의 제안 교육 워크숍·현장조사 활동·컨설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다듬고 완성한다. 이 중 우수 제안들은 검토와 심사를 거쳐 고양시 정책으로 반영된다. 제안창작소 교육은 전문가를 초청해 수요자 관점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수요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토론, 문제분석 등 실습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2019년 제안창작소에서 제안된 '청소년 전용 먹거리 쉼터'는 현재 고양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또 2020년 중앙우수제안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제안창작소' 활동은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집중 실시되며, 2~5명으로 구성된 각 팀이 제안주제를 정해 6주간 제안을 완성해간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나가는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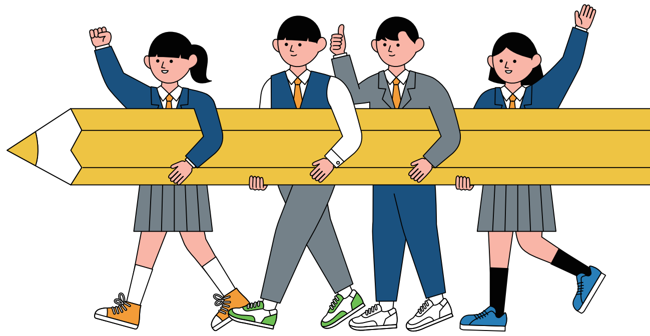
올해 선발된 8팀 중 신일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내 손으로 만들고양'팀 4명의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추첨을 통해 선발되었을 당시 소리를 지를 정도로 기뻤다"며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중학교에 입학해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 때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안창작소 모임을 알게 되었고 함께 참여해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완성해나가고자 한 것이 지금의 팀을 구성한 계기였다.

"제안창작소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선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저희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어요."

팀리더 김율하 학생은 제안창작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고양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대면 모임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지만, 각자 더 나은 방법을 탐색하고 생각도 해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단체채팅방에 알려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불편한 점들이 있으면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서로 부족한 점들도 보충해줘요."

나름의 방법을 찾아 제안 발굴에 박차를 가고 있는 이들은 제한적인 상황도 서로 의지해 극복해나가며 학교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경험과 지식들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는 제안창작소의 탄생배경이자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제안창작소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청소년들이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유행성 호흡기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쓰기 실천에 큰 보탬이 되어 고양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고양'팀이 과연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제안을 완성해나갈지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